

내셔널 지오그래픽展 <Life&Nature>



George Steinmetz/National Geographic

“122년간의 감동을 엄선한 최고의 사진전”

일시 : 10월 29일 ~ 12월 9일(목) *매주 마지막 주 월요일 휴관

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관람 시간 : AM 11:00 ~ PM 7:00

전시구성 : 사진전 Life & Nature展

내셔널 지오그래픽 특별전

주최 : YBM/Si-sa

주관 :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국판, (주)뉴벤처엔터테인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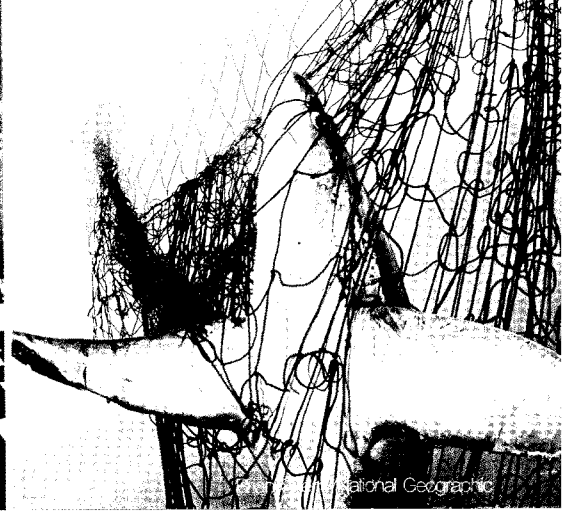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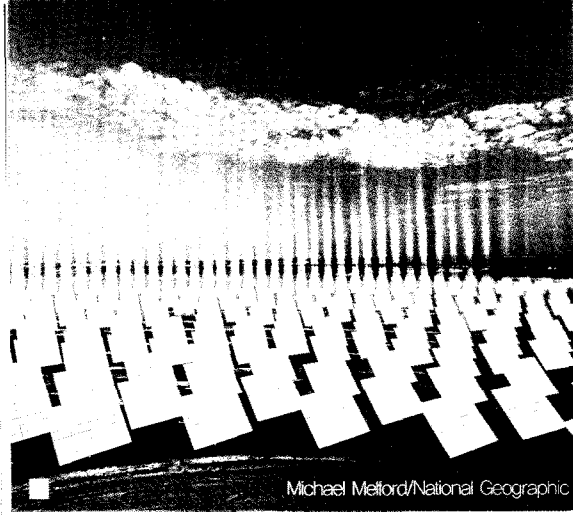
기획 : (주)엔브이커뮤니케이션

공식 홈페이지 : www.ngphoto.co.kr

1888년 미국 국립지리학회에서 처음으로 발간하여 현재 전 세계 32개국에서 34개 언어로 발행되고 있는 월간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들을 한데 모은 전시가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40일 동안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국판 창간 10주년을 맞이해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국판의 발행사인 YBM/Si-sa가 주최하고, 미국 국립지리학회(National Geographic Society, 이하 NGS)가 전시회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미국 NGS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슈인 '지구환경과 인간의 삶'에 관해 <Life & Nature>라는 주제를 다룬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동안 게재된 무수한 사진 중 사진 자체로 아름다움을 주는 사진, 예상치 못했던 충격을 주는 사진, 아름다운 이미지 속 슬픈 현실과 같은 놀라운 반전이 있는 사진, 마지막으로 사랑, 우정, 노력, 희생 같은 인간적



1. 알티플라노 고원의 플라밍고 지구상에 남아메리카의 알티플라노 고원은 마치 먼 세상 같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허허벌판의 메마른 땅에는 나무도 풀도 거의 없다. 조류(鳥類) 때문에 홍옥처럼 붉은 빛을 띠는 고원 위의 호수에서 플라밍고 떼가 날아오르고 있다.
2. 잠비아의 잠베지평원, 황혼의 누. 붉은 황혼 무렵, 소과의 포유류인 '누(Gnu = Wildebeest)'가 고개를 흔들면서 발작적으로 발을 구르며 달리고 있다. 잠비아의 잠베지평원에서 펼쳐지는 야생 그대로의 풍경이다.
3. 노르웨이령의 스발바르 제도 바렌츠 해에 떠 있는 부빙들이 아직은 북극곰의 무개를 건널 수 있다. 하지만 이 어린 수컷이 사는 이곳 환경이 지구온난화로 급변하고 있다.

4. 그린란드의 여름, 빨라지는 해빙. 해빙수가 그린란드의 얼음 사이를 세차게 흐르고 있다. 이 물이 기반암층으로 흘러들면 빙상은 바다로 더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간다. 이는 지구상의 얼음을 더 빨리 사라지게 만드는 연쇄 반응 중 하나다.
5. 태양광발전소 태양에 플러그를 꽂아라. 태양광발전소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집채만한 반사경으로 태양열을 모으는 스페인 남부의 한 태양열발전소.
6. Pelagic thresher sharks. 멕시코 캘리포니아 만에서 환도상어 한 마리가 지망그룹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매년 4000만 마리 정도의 상어가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위해 희생되고 있다. 이렇게 죽는 상어들을 포함해 전 세계 어획량은 연간 1억 톤이다.

가치가 느껴지는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최초의 컬러 수중 사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과 관련된 사진 등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게재되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진들과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진들이 <National Geographic 특별관>에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 구성_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파노라마

본 전시는 <Life & Nature>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자연과 동·식물의 생태계 및 파괴되어 가는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환경 재건을 위한 노력 등의 주제를 담은 4개의 관 및 특별관으로 구성된다. 자연 풍경을 시작으로 동식물의 삶과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의 모습 그리고,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고 보존하려는 희망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4가지 핵심 주제에 따라 선정된 200여 점의 사진을 통해 위기에 처한 지구 환경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며 '사실' 중심의 이야기를 함께 제시한다.

Part 1. 자연의 풍광: 땅, 하늘, 바다를 본다

본 관에서는 땅, 하늘, 바다의 인상적인 경치를 주로 전시한다.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 경관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경외심을 느끼게 만드는 사진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Part 2. 생명의 드라마: 동식물의 삶을 담은 역동적인 이미지

동식물(사람)의 삶을 담은 역동적인 이미지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북극곰과 펭귄의 생태에 관련된 사진들도 전시된다.

Part 3. 지구의 눈물-위기의 징후: 화석 연료 남용, 화학 제품양산, 남벌 등으로 병들어 가는 지구

불법 포획, 화석 연료 남용, 화학 제품양산, 남벌 등으로 병들어 가는 지구의 사진들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더 이상 지구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음을 함께 공감하고자 한다.

Part 4. 절망 속의 작은 희망: 자연 보존 및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장면

고통 받는 지구를 되살리려는 자연 보존 및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의 사진들이 공개된다. 관람객들로 하여금 우리의 노력으로 자연을 보존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